



한국의 사례 ①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정병진*

대학이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얻는 교육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을 의도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에게 차별치 않고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봉사의 센터가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정보와 자료는 한 국가의 자원이고, 모든 사람은 그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 자원공유의 이념을 도입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개방하고, 자원공유의 사회적 요청에 응해야 하며, 지리적 조건을 초월해서 일반 학생과 똑같이 학교, 가정, 직장 어느 곳에서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그래

서 대학내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학외부의 이용자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장차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확대가 기대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주민의 모든 요구에 응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시민에게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연면적 13,779.69m²,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인 도서관 본관 1층에는 대출실, 관장실, 부관장실, 운영관리팀, 전자도서실이 있고, 2층에는 학술논문실(정기간행물, 학위논문), 학술정보팀이 있다. 3층 인문과학실(철학, 종교, 문학, 역사), 4층 사회과학실(총류, 사회과학), 5층 자연과학실(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체능) 6층 고서실(원불교자료, 교사자료, 신문실), 주제정보팀이 있다. 그 외에 의(약)학 도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 원광대학교도서관 사서, bjeong@wonkwang.ac.kr

소장자료는 단행본 85만 여권, 학술지 873종, 전북지역8개 대학 컨소시엄 1,830종, 전자자료 3,278종이다. 교내의 이용자로는 전임교원 687명, 교육보조원 453명, 사무직원 301명. 학부생은 24,116명, 대학원생 1,019명이다(2003년 6월 현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익산지역 초·중·고 대학의 교직원(4,794명), 익산시청 관내 및 국가기관 공무원(3,756명), 봉사단체 및 종교단체(65개 단체 923명), 산업체 및 연구소(82,005명) 직원 등이다. 그밖에 도서관장이 허가하는 기관 및 개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해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상호대차 업무, 전자저널 이용교육, 타기관 이용 검색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별도의 교육장과 외부이용자 즉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One-Stop-Service 코너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이용증 발급과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이용증 발급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사진 1매와 주민등록증 앞·뒤면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해주고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여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홍보효과도 크다고 본다. 지역주민은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열람, 상호대차, 원문복사 서비스 등은 물론 학부생과 똑같이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열람 및 자료의 대출은 내부이용자가



〈지역 주민용 도서관 이용증 뒷면〉

우선이다.

기 대출된 자료라도 내부 이용자가 원할 시에는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도서 대출은 5책 14일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출기간은 실제로 한 달이 되는 셈이다. 홍보는 언론·방송 매체 활용과 중앙지 및 지역신문, 지방방송을 활용했다. 또한 학교 홍보팀과 협조하고, 교내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지역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반응이다.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 받은 익산시 시민 단체의 P씨는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많은 자료를 익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인터넷으로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주)H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K씨는 “이전에는 자료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광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상호대차, 대출 등이 이루어지니 생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사서들이 확실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사서의 몫이 아닌가 싶다. 사서들 모두가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전진할 때 기회는 주어진다든 평범한 생각을 해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관에 대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대신하는 기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15일 현재 1,261명의 외부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 받아서 아주 흡족한 미소로 오늘도 새로운 정보사냥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사서의 한 사람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모든 대학도서관을 완전 개방하여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방소재의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이 되면 지방에 내려와서 마땅히 이용해야 할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대학도서관 상호간에 협력이 되어 학생들을 각 도서관들이 받아들인다면 한층 좋을 것이다. 실제로 원광대학도서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여 도서관을 이용케 하였다. 그러나 본교학생들은 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하소연도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도서관이 가급적 빨리 완전 개방을 실현시켰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과 정부당국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서 개인의 자세의 변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 ◆ 2003년 9월 25일(목)~27일(토)
-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 개회식, 제9회 독서문화상 시상식(문화관광부),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라운드테이블, 도서관 문화 및 정보화 관련 전시회 등
- ◆ 문의 : 협회사무국(02-535-4868)